

마다 그 집안모양이 변하는듯 뜻밖개일이 만히 생기더라
유모도 보려고
즈근돌이는 아모죄업시 낫쫓고 전동집은 팔아서 음막사리 조고마흔 집으로 옮
고 세간살림은 밧삭조리는데
그희척은 다점순의게서 나오는거시라
먹을거시업서서 군 식구를 다 보되는데도 아니오 돈이 귀하야 집을파라 조린
것도아니라
집안에 사람이 만흐면 부인과점순이가 가진흥계를 삼이는데 눈치치일 사람이
잇슬가 녀녀하야 그리하는거시라
가령사람이 법석법석하는(一國政府)일국정부에서는 손사락하나를 씬작하여도
그소문이 전보줄타고 삼시간에 천하각국으로 건너가고
두세식구사는 음막사리 가난빙이집에서는 그속에서 무슨일이잇는지 밤쥐와낫
시가 말전주하거전에 알수업는일이 만흐법이라
점순이가 서방을뵈여버리고 자식은남밧겨 기르고 제몸은 춘천집에가서 잇는듯
물쓰듯 하는돈은 부인이 기러된다
김승지는 점순이갓흔 총비는 천지개벽이후에 처음난줄알고
춘천집은 점순이가 업스면 하로라도 못결릴줄로안다

김승지의부인은 흥계가 생기더니 투괴하던마음을 주리참듯참고 잇는듯 김승지
는 그부인이 마음이나 변하야 투괴를아니하는줄로 알고잇스나 원리그부인의게
쥐여 지는사람이라 도동을가려면 죄수의 특사너리드시 그부인의게 허락밧기
전에 감히 제마음더로가지는 못하는모양이라 침모는 본리바누질품으로 압못
보는 늙은어머니를 버려먹이더니 전동서 나온후에남의 옷가지나 맛하짓는다하
여도 치운거울에 시량을 이을수가업서서 티단이어렵던초에 춘천집이 산후에몸
도 성치듯흔중에 또춘천집이 침모를엇지 천절이구던지 그럴저력하다가 춘천집
에서 바누질가지나하교 그집에늘니잇스니 주머니세잔이 씬저로 드러간것갓치
전동김승지집에 잇던침모가
도동춘천침침모가 되얏더라
침모가 전동잇슬씩는 부인의 성강짜서슬에 엇지조심이되던지 부인보는씩는 김
승지압해 바로서지도 못하얏더니 춘천집은 부인의성품과 엇지그리 소양지판으
로다르던지 김승지가 침모를보고 무슨시럽슨 소리를하던지 춘천집은 드른체도
아니한다 침모가본리고 정흔녀편네 마음이러니 김승지의부인이 남더러박관의
덕흔 말을지여너서 김승지가 침모와상관이나 잇는드시 야단을천후에 침모가
도동서 김승지를보고 엇지분하던지 김승지더러 푸념을하느라고 말문이열니더
나 그후에는 무슨말이던지 허물업서 흥부로나오는 모양이라

아모죄업시 이미훈말듯던일이 분홍성각이 드렸더니 그 이미훈말이 중미가 되얏던 지 김승지가 그말을들석거리며 시럽스말시작을하더니 연분이참 잘싱겼더라 못나고병충마진위인이 계집이라면 사족을못쓰는 김승지라
 춘천집이 홀연이병이드러 여러날정신 업는중으로지너는디 그석는 김승지가 그 부인의게 수유나어뎡던지 춘천집의 병을보러밤낮업시 오더니침모와 서정어싱 겠더라
 원집이다물나도 눈치빠른 점순이는 말서알고 침모의게 긴하게회하려고 눈치는 아는체하고 일은쓰러덥는체하고 필요악을다부리니 침모가본리고약혼사람은아 니나 제신체에 계판되는 일이잇는고로 자연이점순이와 창자를맞디히고 지너는 디 춘천집은 점점고단혼 사람이되얏더라

第十六章

걱정업고 근심업고 자지도아니하고 쉬지도아니하고 밤낮 가는것으로만 일삼는 거슨 세월이라
 김승지의부인과 점순이는 조흔괴회를 기다리느라고 하로가 삼츨갓치 기다리고 잇스나 아죽조흔괴회를 못엇어서 조종이나서 못견디는디 경륜흔지가 일년이되 얏더라
 춘천집의 어린아히는 돌지핀지한달만에 엇지그리숙성하던지 아장아장거르면서

엄마엄마 부르느거슬보면 부얼부얼하고 탐스럽게싱긴 모양은 아모가보던지 귀 이홀만하고 원수의조식이그러하더티도 밍개볼수는 업겟더라
 그석는 김승지집에서 삼천동으로 이사후후이라 점순이가 그아히를업고 김승지 집에 왔는디 부인이 그어린아히를 보더니 소스리쳐 놀나면서

(부인)이이 점순아 네등에 업힌아히가 누구냐
 그거시 춘천집의 조식이냐 에그 그년의조식을 싱으로부등부등 쓰디먹어스면 조켓다
 네이 그년의조식을 이리다리고 오너라
 목아지나 비트러 죽여버리자

(점순)에그머니 큰일날말습을 호심니다
 그럭케쉽게 죽이려면 현네가말서 죽엿게오
 조곰만 더참으십시오 오리지아니하야 조홀도리가 잇습니다

(부인)이이 날마다 조곰조곰하면 조곰이 언제란말이나 너가늑어죽은후를기 다리나나
 (점순)마담게서 답々호실만흔 일이을시다마는 참으시는김에 눈썹적몇칠만

더참읍시오
 부인이 이를 앙물고 모지름을 쓰며 어린아히를부른다

(부인)이원슈의 년의 지식 이리오너라
함며 손을탁々치니

어린아히는 병글병글우스며 두팔을속되미니 부인이어린아히의 팔을와락잡어
되리거날 점순이가 삼씩놀나서

(점순)에그 마님 그리맙시오

함면서 어린아히를 두루엮고 흰들흰들 흔들면서

(점순)이이오늘은 네가늬덕에 사랏지

이후에 너손에죽더리도 원통할것엮나니라

너는죽을썩에 너의어머니와 한늘한시에 죽어라

히々々

우스면서 썩죽흔덕이 엇개에닷도록 고개를돌녀서 어린아히를보는 눈동즈가 한
편으로 엇지몰넛던지 본리암승스려운눈이 더욱사름을 굿칠듯한다

천진이 썩々뎛는 어린아히는 점순의등에엮혀서 허덕허덕함면서 고사리갓흔 손
으로 점순의 얼굴을합의늬티 점순이가 소리를 바라지르면서

압흐다 요것 누구를 할퀴나냐 하로박비 뒤여지고심흐나

함면서 철업는아히더러 포달스럽고 악독흔말을함는티 김승지가안마당에 드러
서도룩모르고 부인이 듯고조아홀소리만한다 김승지는증아니박은 발막신훈발이

라 발조최가 그리티단홀것도엮고 그중에점순이가 부인의압해서 양양즈득함야
함는 제말소리에 김승지가압해와 서도룩모르고 잇더라

부인이 민망함야 점순이의게 눈짓을함면서

(부인)에그 요방정마진년어린아히더러 고거슨 다 무슨소리냐

아모도엮스면 부인의입에서 그러흔소리가 나올리가 만무홀티이라 영리함고 먼
첩흔점순이눈 밧셔눈치를 쳐우고 선뜻함는말이

(점순)어린아히는 험흔소리를드러야 잘조란담니다

저의 어머니가 듯지아니함는썩는 썩네가 놀마다엮고 그러흔소리만 함담니다
외밧 가지밧에도 더러운거름을 쥬어야 잘조라고 잘얼넛담니다

아가 네가 늬게 그러흔 험흔소리를 드릿게 이럿케속성함게 잘자랏지

둥々々々々개라

함면서 아히업은 뒤집진손으로아히를 들싸블며 부라질을 함고셔々 김승지션거
슬 것눈으로는보야도 바로치어다 보지아니함고 천연함더라

잔썩만흔점순이가 말휘갑을엇더케 잘쳤던지 김승지는아모의심업시 드를썩이라
점순이가 어린아히를엮고 도동으로나아가니 춘천집이 안방지계문을 열고나오며

(춘천집)거북아 어티를갓더냐

어미도보고심흐지 아니함더냐 나는오늘원일인지 가삼이올령을령함고 마음이

조치못하야 네가 어디 가서 무슨 탈이 낫는가 녀녀하얏다
이리 오너라 좀 안아보자
하며 손을 뚝뚝치니 어련아히가 병글병글우스면서 점순의 등에 업힌채로 용소습
을하야 띄며 조아흔다

점순이가 성어나서 열골이 밝이지면서

(점순) 탈이 무슨 탈이 오닛가 아기를 누가 었지 흠닛가

(춘천집) 아날세 즈네가 업고나 잔거슬 녀녀하느거시 아니라 힘길에 사름은 물
볼듯하느디 전초도 당기고 말타고 달니는 사름도잇스니 어른도위티하데

(점순) 설네가 혼자당길씩는 아무걱정이업시 당겨도 아기를 업고 나가면 었지
조심을하던지 개미흔마리만보아도 폐하야 당긴담니다

서방 썤여버리고 제저식은 남의게밧기고 뒵에와서 이렷케잇는거시 무슨싸닭
이오닛가 뒵아기하나를 위하야 그리하저오

하느말이 공치스하느 눈치가잇스니 춘천집이 점순의게 불안하마음이 잇서서
안으려고 손쳐부르던 어련아히를 다시부르지도 아니하교

(춘천집) 에그 나느무심이 흔말인디 그러케이상하게 드를일이아닌걸.....

하면서 우뚝하니 섯느모양은 누가보던지 성품곱고 안존흔 티도가 보히더라

第十七章

그날밤에 점순이가 어련아히을안고 건넌방에로 건너가니 침모가 김승지의 버
션을 짓고 안젧더라

(점순) 마누라님 하시는일이 무엇이오닛가

(침모) 령감버션일세

(점순) 우리딴 령감게서는 단이실곳이 만흐니 버션을 만히 집시오

(침모) 어딴를 그리단이시나

(점순) 마님께 가시지오

마누님께 가시지오

침모마누라님께 오시지오

남은버션한케레 썤러질동안에 우리딴 령감게서는 세케레가 썤러질것이 아니
오닛가

침모가 손짓을하며

(침모) 요란스러워

마누님 드르시리

(점순) 마누라님이 마누님을 그리무셔워하실거시 무엇이잇습닛가

마누님이나 마누라님이나 무엇다를것잇습닛가 춘천마누가 좀 먼저드러왔다고

마누라님이 그리겼을 뒤심닛가

(침모) 겼은아니나도 너가큰소리할거시야 무엇잇나

령감이 아모리나를 귀이흥시더리도 나를첩이라 일흥지여둔 터는아니오 마々
님은 처음부터 령감이 첩으로정하야 두신터이아닌가

에그 춘천마々는 지경답네 저러흥아들까지났고.....

흥면서 괴석이 좇치못흐모양인터 본리 고성만히흥고 서름 만흥사름이라 춘천
집을 부러워흥는 모양이러라

점순이가 그괴석을알고 침모를치어다보며 상그시우스니 침모는 말을흥다가 붓
그러운괴석이있더라

(점순) 여보 침모마누라님.....

저러케 암전흥신터에 우의바늘귀만췌히고 세월을보너시오

(침모) 나갓치 팔즈사나운년이 이것도아니흥면 굴머죽지아니흥나

(점순) 그말슴 마르시오 지금이라도 침모마누라님이 흥시기에잇지요

(침모) 무슨조흥도리가잇나

(점순) 조흥도리가 잇스면 그터로흥시깃소

(침모) 너가 이제는 고성이라면 진저리가나네

고성을 면할도리가 잇스면 아모짓이라도흥깃네

점순이가 귀가번췌췌여서 밧삭다거안지면서 나적나적 흥던목소리를 가장 옛듯
는 사름이나 잇는드시 침모귀에티고 가만이흥는말이

나도침모님 덕졸롭시다그려

흥면서 상곳이우스니

(침모) 너가 즈내게 덕을보여줄 힘이잇는 스름인가 만일 덕을보여 줄수만잇

스면 흥다췌이깃나

(점순) 아니오 너가침모님 잘될도리를 바라는 말이지 너가잘될도리를 바라는

말은아니오

지금이라도 내말만드르시면 침모마누라님이 아모걱정이 업서 일평성을 잘사

르실것이오

침모가 바누질흥는거슬붓코 담배를담으면서

(침모) 저잘될것 마다는사름이 누가잇깃나

나도긴々밤에 바늘을들고 안젓스면 별싱각이다 나는췌가 만이잇네

(점순) 지금 춘천마々님만 업스면 침모마누라님이 호강을흥실것이올시다

(침모) 춘천마々が 업슬서답이잇나.....

(점순) 죽으면업서지는것 아니오닛가

(침모) 말잔사름이 죽기는 언제죽는단말인가

(점순) 죽이면 죽는 거지요
침모가 그 소리를 듣고 가삼이 덜컥 내려안지며 몸이 별々 떨이느니 한참을 아무 소
리 없시 안젓더라

점순이가 내친거름이라 말을 닦다가 만일 침모가 듣지 아니하면 큰일이 들듯하여
첩々 혼말노 이리 썩고 저리 썩히고 엇더케 썩혔던지 침모의 마음이 솔깃하게 드러
간다

흥계를 삼이느라고 들이더깅이를 맛디히고 수군거리느니 점순의 무릅우에 안
겨 잠드러던 어린아희가 새여우니 점순이가 우논아희를 말끄름이 드러다보며

(점순) 이이 네가 너 무릅우에서 잠도만이 잤나니라
일년을 잤스면 무던하지

오나 실컨우러라 오늘뿐이다

하면서 젓색지를 물이니 침모가 그 소리를 듣고 다시 소름이 끼친다

(침모) 여보게 밤드러네 그만가서 자게 이방에 너무 오리잇스면 마々님이 수상
하게 알니

점순이가 상그레우스면서

(점순) 저러케 무셔워하던 마々님이 업스면 오작시연 할실나구
나를 상줄만 하지 마는.....

침모마누라님 그러치오.....

에그 침모마누라님이 무어시야 너일부러는 마々님이라 하지.....
버릇업다고 억중마르시오

하면서 양々 조득흔 괴석으로 이어나더니 다시 들쳐서 침모를 보며
여보부디 너일밤 열한시로.....

침모는 썩싱각을 하다가 점순의 말에 고귀만 똥덕거리고 점순이가 흥남으로 나
간 후에 침모는 혼조누어 이상각저싱각 각씩싱각이나기 시작하더니 눈이 반々 하
고 몸에 번열중이나서 이리 등곳 저리 등곳하다가 정신이 혼々하여 잠이 들야 말야
하는중에 건너편 남관왕묘에서 천둥같은 호령소리가 나더니 별안간에 썩뒤가 세
뼨씩이나 되는 사람이 춘천집마당으로 굻드러서 알변으로 침모를 잡아 너리
더니 솔기가 병아리 초고가듯 집어다가 관왕묘마당한가운데 엽질너뚫코디
컬갓흔 높은집에서 원장수하나이 내려다보며 호령이서리갓다

요년 너갓치오악호년은 세상에 살너들수가 업다

하더니 긴 칼을 썩썩여 들고 한거름에 내려와서 소리를 벌억지르면서 침모의 목
을 대경비논서술에 침모가 소리를 지르고 잠을 깨니 꿈이라

엇지 무셔운싱각이 드던지 이불속으로 고기를 움추리고 누엇다가 무셔운마음을
진정하야 이러나서 불을 켜고 안젓다가

창살이 밝아오는거슬보고 이씨던옷가지만 보에잔단이하게 싸셔들고 아모소리
 업시 나가다가 다시싱각흥즉 식벽녀에보흥이들고 길에나가기도 남보기에 수상
 혼일이오 춘천집이새여 보더티도 이상하게 알거시오 점순이논 내가김승지령감
 게 무슨말이나할러 잔줄로 의심을할듯하야 다시방에드러가 안젓다가 안방에서
 춘천집이새여 기침하는 소리를듯고 불을 톱 쏘더니 보흥이를감추고 옷입은치
 로 이불을쓰고 드러누엇더라
 허가무럭무럭을나오는티로 이불속에서 숨적어리던사람들이 툭々떨고 이러나
 는티아모싱각업시 잠만저던 춘천집도 이러나고 늦게누어 곧하게저던 점순이
 도 단잠을여저로새여 이러나고 잠조는 시흥하고 누엇던 침모도 이러났다
 침모가 제집으로가서 그어머니와 의논을하고집으나 점순이가 의심을할듯하야
 엇지흥면조출지 생각을 정치못한다
 미다지를열고 안젓다가 점순이를보고 눈짓을하니 점순이가 고기짓만 살작하더
 니 먼저안방으로 드러가서 춘천집을보고 아침찬거정을 부손이하다가 돌쳐나
 오는길에 건넌방으로 드러가면서 짐짓목소리를 크게하야 말을하다가 고기를
 살작속이며 가만이하는말이
 무슨할말잇소.....

(침모)여보게 나는숨도 하롭시우어서 심병이되네

하면서숨이약을하니 점순이가 상긋우스며
 (점순)마누라님 마음이 약하신킨고로 그런숨을썩섯소
 어제밤에 흥던말이 마음에 겁이나섯던가보구려
 걱정마르시오 사람을 죽이고 벌력을입으려면 낙동장신 리경하는 놀마다벌력
 만입다마렷게오.....
 마누라님 마음에는 우리가 그런일을하면 무슨벌력이나 입을듯하리오
 흥즉 더길이랍디다 그런숨은 조흔숨이오
 (침모)즈네말을드르니 너마음이 좀진정이되네
 그러면 오늘밤되기전에 너 짐이나 좀 치우깃네
 (점순)그사진점은 치여무엇하시려오 짐을치우면 수상하니 치우지마르시오
 무어시던지 다장만하여 드릴터이니 녀너마르시오
 침모가 일변안심도되고 일변조심도되나 점순의게 미힌것갓치 점순이하는티로
 만 듯고있다가 허가낮이된후에 점순이가 어디로가는거슬보고 혼자지향업시티
 문간에나섯다가 관왕묘집을보고 무서운 마음이싱겨서 다시제방으로 드러가더
 니 치마를쓰고 나가면서 춘천집더러 어디잔다는 말도아니하고 계동으로향하야
 가더라

어머니

부르면서 머리에 썼든 치마를 버셔 들고 「마루우호로 선뜻을 나서」 방문을 펼쳐여
논거슨 침모이라

네 목소리 반갑구나

사치가 영물이라 오늘 아침에 반기더니

향면서 먼 눈을 멀썩々々하며 힘을 번적 드려 문소리나는 곳으로 귀를 두르는데
얼굴은 사름업는 옷목뻬을 향하는 거슨 압뭇보는 로파이라

침모가 그 어머니 모양을 물그름보다가

(침모) 어머니 니가 그동안에 병어리가 되얏던들 어머니가 나를 만나더리도
썰이왔는지 누가왔는지 모르실러이오그려

향면서 어미 모르는 눈물을 씻더라

(로파) 이이 그말마라 관슈된어미는 사랏스니 맞나본다마는 눈밖던 너의아바
지는 눈을아조감고 북망산에 누엇스니 네가 병어리도되지말고 잉무시가되야
서 너의아바지 뵈에가서 지저귀더리도 빈산 쇠흔골에 적막흔 혼이 드를년
지 못드를년지.....

그를싱각하여보아라

그러나 뉘들 늙고병든스름이 네목소리를 몇철이나 듯깃나나

침모가 그 어머니 말을듯고 가삼이 저는듯하여 아모소리업시 가만이안젼다가
옥갓흔 침모의손으로 숨쳐갓치 엉성흔 뼈만남흔 로파의손을 만져보더니

(침모) 에그 방에안지신 어머니손이 한데잇던 너손보다 더추구려
향면서 방바닥을 만져보다가 삼썩놀나며

(침모) 에그 이방보게 아리목불목이라고 닝김도아니 가시엿소구려

(로파) 네가 바늘땃호로 버려서 나무를 사 보던거슬 나흔자 엿지방을덥게하
고 잇깃나나

(침모) 어머니가 고싱하시는 싱각을향면 니가 사름을 쳐죽이고 도적질이라도
향여다가 어머니고싱을 면하게홀도리가 잇스면향고심소

(로파) 이이 그러싱각 마러라 제가 잘되려고 사름을엇지 죽인단말이나
그런싱각만향여도 별력을입을것시다

(침모) 나동장신 리경하는 어진도다그려는 예수교인을 십이만명이나 죽였다
는데 엿지방어 그러한독흔 사름의게 별력이업섯스니 원일이오

(로파) 이이 네말이 이상한말이로구나

제가 잘될경으로 사름죽이고 당장에 별력을입어서 만리타국 감옥에서 열두
히 증여하고잇는 고영근의말은 못듯고 스십년전에 지나간일을 말하는거서
이상하고나 리경하는 제가 사름을 죽였다더나

나라법이 사람을 죽였지
나라에서 무죄하고 착한 사람을 만이 죽이면 그나라가 망하는 법이오 사람이
간악한 죄로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이 벌력을 입나 나라
왜 무슨 일 있나나
누가 너를 썩히더냐

항며 고기를 번쩍드러 쌀의 압호로 두르고 눈을 멀듯 멀듯 하며 쌀의 대답을 기다리
는 거슨 나만코 저가 있는 로파이라

침모가 한참 동안을 더 답업시가만이 안졌스니

(로파)이이 참 병어리 되얏나 보구나

무슨 생각을 하고 안졌나나

오나 내가 너를 밋는다 너 갖치 곱고 약한 마음에 무슨 큰일 내지 아니 할 줄은 짐
작한 다마는

부처님 말씀에 백세나 된 어머니가 팔십이나 된 자식을 항상 녀려온다 하였스니
부모된 마음이 본리 그러한 거시니라

네가 압호보는 늙은 어머니의 고성하는 거슬 민망히 녀려서 사람이라도 쳐죽이고
도져질이라도 하고 십다하니 그런 효성은 업나니 만 못하니라 옛이 약이도 못드
러너나 정인홍 이라고 하는 사람이 팔십이 되도록 명망이 더 달하더니 그 부인이 곱

머 서무러 천거슬 보고 가는데 마음 상하여 그날로 리이 침의게 못헛다가 팔경에
는 국모를 폐하던 모주가 되야 흉악한 죄명을 쓰고 죽을 처에 탄식하는 말이 비
곱흔 거슬 좀 참았더면.....

(鄭仁弘 將死曰 小忍饑)

항던 그런 일도 있셔스니 가는데 적상하면 사람의 마음이 변하기 쉬우니라

로파가 항던 말을 곱치고 눈을 멀듯 멀듯 하며 무슨 생각을 하는 모양 갖더니 다시

침모의 압호로 고기를 두르며

(로파)이이 그것 참 원일이야 내가 도동가서 잇스후로 내게로 무어슬 더럭 더럭
보내니 내가 그 집 거슬 몰너 훔쳐 내나 보구나

(침모)에그 망칙하여라 나는 죽으면 죽었지 남의 집에 잇셔스 쌀 퍼되고 장 퍼되
고 반천거리 도져질하여 너지는 못하겟소

팔자가 스나와서 남의 집에 가서 바누 절품은 팔지 언정 티검불 하나 일지라도 남
의 눈은 못 쇠겨 보았소

항면서 고기를 수구리더니 로파의 무릎 위에 폭업드려서 울며

(침모)어머니 너가 하마터면 큰일을 저즈를 번하였소

(로파)응 큰일이라니 드러안 전너 편네가 큰일이 무슨 일이란 말이나

침모가 다시머리들더니 점순이가 썩히던 말을 낫々치른다
로파는 본리진중혼 사람이라 별로놀나는 괴석도업시 가만이안졌다가 천연이호
는말이

(로파)이이 그것참 이상한일 아니냐 점순이가 돈은어딴서나서 그리 잘쓴단
말이나

춘천집을 죽이면 제게무슨 조흔일이잇서々 죽이려고 혼단말이나
춘천집을죽이고 제가 김승지의 첩이될것갓하면 죽일마음이 성기々도 고히치
안흔일이나 춘천집을죽인후에 너더러김승지의첩이되라고 그홍악혼 썩를너히
는거슨 티담이의심나는말이다 네싱각하여보아라 그랬치아니냐

(침모)에그 나는무심이 지닛더니 어머니말을듯고 싱각하니 이상한일이오
(로파)네가 고년의게 속았다 전년겨울에 춘천집이 처음셔을왔을썩에 김승지
의부인이 야단치고 위미흔너서지 거러서 못할소리업시하며 괴를버력々々 쓰
던 사람이 홀지에 변하여 투괴업시 잠자코 있다하는일도 이상한일이 아니냐
점순이가 우리집에와서 춘천집을 누가감춘드시 우리속을 썩으려하던일도 제
마음으로 온거슨 안일듯하다

그후에 춘천집이 도동에집을 장만하여잇는거슬보고 점순이가 도동가서 잇는
것도 이상치아니냐

남의위미흔 말을하면 죄가된다더라마는 네게당흔일이야 말아니홀슈 있나냐
네가김승지와 아모서담 업슬썩도 김승지의 부인이 너를잡어삼키려고 날뛰던
너편네가 지금은네가김승지와 상관치잇는줄 적실이안후에야 오작미위흔깃
나냐 춘천집을 미위흔는마음이나 너를미위흔는마음이나 다를것무엇잇잇느냐
네싱각에는네가김승지와 상관잇는거슬 부인이모를듯하나 점순이가 아는일
을 부인이 모를이가업나니라

점순이가 돈을몰쓰듯 한다하니 그돈이 죽일돈이다
만일오늘밤에 네가점순의썩에 빠져서 춘천집모자를 죽였던들 고 요악흔점순
이가 그죄를 네게밀고 저판살작빠졌슬거시다

누가듯던지 김승지와 상관잇는 네가강심으로 춘천집을죽였다 할것아니냐
점순이가 돈을몰쓰듯 하는년이 저는비포가 다잇쓸거시다

(침모)나는 입업다구 나흔자몹슬년 되고마라
살인흔죄로 너가죽으면 점순이도죽지

(로파)이이 그말마라 사람의 썩는 한량이업는거시니라

네가만일 춘천집죽인죄로 법사에 잡혀가서 압뒤로쌍쌍맛고 공초홀지경이면
너는점순의 썩임에빠졌다고 점순이를업고드러가는 말썬일거시오 점순이는
빅판 모르는것갓치 집어떼힐러이니

점순이는 썩만코 말잘하는중에 또돈만코 세력있는 김승지의 부인이 뒤로쥬션 하여쥬면 점순이는 버서나고 너갓치말도 잘못하고 썩도업고 아모도 도아줄 사름업는 너만 죽을거사아냐

그런치아니하고 김승지의 부인파 점순이와 나와 세손씩이마저져 못싱긴 김승지를 휘들너서 집안에서 쉬쉬하고 춘천집죽은거슬 감짜갓치 슈쇄하고 아모탈업게되더리도 춘천집죽은후에는 네호몸이야 또어는씩 무슨죽업을 할지 알거사나 별쇼리말고 가만이잇거라 그런거사 다 부인파점순이가 정녕손마진 일인가보다 이이네말을좀 자세들어보자 점순이가 그것게 너를썩힐씩에 네마음에 슬곳하게드러가더냐

그리 놀더러 못지도아니하고 점순이랑라는되로 향러드러더냐

네마음이그릿게 드러슬것갓하면 마른항늘에 벼락을마져 죽어도싸니라

오냐 이길로 도로가셔 오늘밤니로 춘천집모자를죽이고 김승지의 첩노르슬향 여보아라 네가얼마나잘되나보자

침모가 그쇼리를듯고 다시머리를 수구려셔 그어머니 무릅우에 폭업되리며 에그머니 이를엇지하나

너가어머니 뵈을났이업쇼 마른항늘에 벼락을마져죽어

싼일이오

어머니 말을못드러더면 점순의셴임에 싸졌슬거시오

어제밤에 단々상약을향고 씩자리가향도 사납기로 겁이나셔 어머니께 무러보러왔소 그러나 서산에떠러지는 허와갓흔 늑은어머니가 이런고성을향는거슬 보니 생각이졸지에 변하는구려

홍흔살도 이저버리고 겁나던마음도 업셔지고 불갓흔욕심이 서로싱겨셔 어머니더러 그런이야도 향지말고 이길로도다가셔 점순이랑라는되로 향러드러섯소에그내가죄를 밧깃네

어머니 나논이길로 삼천동가셔 김승지령감더러 그런말을향깃소 (로파)아셔라 그리도마라

김승지가 그런말을듯고 일쥬처를 잘할사름갓하면 말을향다썩이깃나냐마는 정녕그런치못을것갓다

그말을내고보면 그홍악흔부인과 고 악독흔점순의숨씨에 네게만밀고 별일이 만히 성길거사다

세상에 허다흔사름에 남의잘잘못이야 다 말을것업시 네말이나하자

네가시집을 가고십흐면 막버리군이라도 사름만착실흔 흠이비를 구하야 시집을가는거사 편하다하던사름이 엇더케마음이변하야 계집들식이나되는 김승

지와 상관에 있는 거슨 네 형실이 그러니라 만일 네 입으로 무슨 말이 나고 보면 네 취졸만 드러나고 그런 몸술 일은 네가 뒤집어 쓸 만도 하니라

(침모) 그러면 내가 다시는 아모데도 가지 말고 집에 잇깃소

(로파) 그러하더리도 탈은 낫다 춘천집에는 아모도 업고 너와 점술이만 잇던 집 인디 오날 밤에 점술이가 혼자 춘천집을 죽이고 네게로 말면 남이 듯더리도 네가 춘천집을 죽이고 도망흔 것 같지 아니하냐

침모가 그 가닥혀서 울며 하는 말이

그러면 나는 이리 하여도 탈이요 저리 하여도 탈이 구려

나는 볼 죽을 마음을 먹엇던 사람이니 죽어도 한가 할 거시 업쇼마는 나 죽은 후에 어머니 신세가 엇지 되나

(로파) 오냐 걱정은 마라

네가 호강을 할들 몇칠 할며 고성을 할들 몇칠 할 것나냐 마는 너는 전정이라 죽면 사름이 그릇케 지각 업는 거슬 보니 네가 죽드리도 마음을 못 못 켜다

네가 마음을 곳쳐서 다시는 그러흔 불량한 마음을 먹지 아니 할 것 같으면 이번 일을 잘 조처 할 도리를 일너 줄 터이니 우지 말고 이러나서 자세히 드러라

침모가 모괴 소리 같흔 우름을 똑뚫치고 머리를 들더니 응석하는 어린 아히 갖치는 물에 저진뻘으로 그 어머니 어깨에 기터면서

(침모) 이후에는 너가 말한 번을 띄여 놓터리도 어머니 더러 무러 보고 띄여 노흘 터이니 녀 녀 마르시오

(로파) 무러 본다는 말은 조흔 일이다 마는 어미 죽은 후에는 누구더러 무러 볼 터이나 평성에 마음만 을 케가 지면 죽어도 오른 죽음을 하 나니라

오냐 이 쓰지 말고 네 이길로 김승지 집에 가서 김승지 너외 더러 너가가 르치는 터로 말하고 그길로 도동가서 너가가 이르는 터로 하고 어둡기 전에 집에 도로 오너라

(침모) 그리하면 춘천집도 살깃쇼

(로파) 춘천집을 살이려 하면 네가 음회를 바들터이니 엇지 할 슈업다

침모가 일시에 점술의 쇠임에 빠져서 춘천집을 죽이 자하는 말에 술 곳흔 마음이 드 렷스나 본 리악심이 엇난 계집이라 춘천집까지 살이고 심흔 마음이 간절 하야 가만 이안져서 무슨 생각을 하는 모양이라

(로파) 이이 허다 잔다 네가 숨청동을 갖다가 도동까지 가면 저물깃다 인력거 군들만 어더서 압혀서 썰고 뒤에서 미러서 썰이만 가면 갑슬만히 주마하고 속히 당겨 오너라

침모가 당황흔 마음이 나서 섣득이 러나서 그길로 삼청동 김승지 집에로 향하야 가는 터 인력거를 타고 안져서 서으로 기운 희를 치어다 보며 인력거군의 다리를 바지랑 띄 갖치 길게 이어서 속히 가고 심흔 마음뿐이라

돈을 만히 준다 하면 사람의 업든 기운이 절로 나는 법이라 인력 거군이 두세 잔 동안
이나 압선 사람을 보더 리도 어 소리를 지르면서 얼굴을 에는 듯 흔 찬바람에 등쌀
에 삼이나 도록 다름 박질을 흥더니 잠시간에 김승지 집덕 문압해 가서 내려 놓더라
침모가 안마당으로 드러 가며 혼자 말로

이 덕에서 이사 하셨다는 말만 드렸더니 이러케 구석진 덕 와서 사르시나
흥면서 마루우호로 올라서니 그 덕 맞참 김승지의 내외가 안방에 잇다가 침모의 목
소리를 듯더니 김승지는 눈이 휘둥구리 지고
부인은 얼굴 빗히 변항도 록 놀는다

놀나기는 못치 놀나스나 놀나느 괴식을 서로 감추더라
쳐 시하되는 김승지는 상관 잇는 침모 오는 목소리를 듯고 눈 휘둥구리 지기도 고히
치안치마는 전반 불기를 썰려 보지 아니 하엿스나 전반 불기를 능히 썰릴 만흔 괴를
가지고 잇는 부인은 무어시 겁이 나서 얼굴 빗히 변항도 록 놀나던가

낮전에 점순이가 와서 하느 말이 온일은 침모를 썰혀서 춘천 집을 죽이 깃다 하느
쇼리를 듯고 흥에 띄여서 각골 슈령이 이방을 부르 드시 반비앗치 괴월이 더러 사랑
에 가서 령감 예슈어라 하야 김승지를 불너 드러서 투괴 안던 자랑을 흥고 잇던 차에
침모의 목소리를 듯고 부인의 생각에 침모가 정녕 김승지의 게 고자질을 하러 온 줄
로 아랏더라

그렇치 아니 하얏다면 키 썩리 황모 되라고 암만 투괴를 참앗던 터이라도 침모를 면덕
하여 보면 열이나서 엇더케 날 썰 엿슬지 모를 일이라

침모가 문을 벗쳐 열다가 김승지를 보고 속괴 좃케 하느 말이
에그 령감 흥고 나 흥고는 엽분도 좃습니다

나 올 줄을 엇지 알고 안방에서 기다리고 안지섯 습닛가
겁이 펼쳐 나던 김승지의 마음에는 침모의 하느 말이 민망 하기가 측량 업스나 못성
긴 사람도 석국이 농잔을 흥면 남의 말 디답은 녀쭈쭈 하느 법이라

(김승지)글세 말일세 자네가 나를 저러케 략을 닛슬 줄 아랏다면 말서 집어 셋
슬길.....

절후 흥일 일세

흥면서 지향 업서 무릅을 탁치면서 마누라의 얼굴을 한번 쳐 다 보고 다시 침모의
얼굴을 쳐 다 보더라

부인이 다 른 썰 갖 흥면 그 남편이 침모와 그런 룹담을 흥느 거슬 눈썹팅이로도 보고
십지 아니 하엿슬 터이나 도져 이 말이 저 리다고 그 썰 말이 저 리 일 이 잇서서 도로혀
침모의 마음을 좃케 흥착 정으로 우스며

(부인)자네 참 오 리 잔만에 맛나 보 깃네 그려
사람이 엇지 흥면 그 령케 무정 흥 단 말인가

넋이 좀 잘못하였기로 그렇게 씀은 단 말인가
어서이리드러오게

하면서 뜻밖게 영너리성이 었지던 단 영너지 겁에 떠여서 등구리졌던 김승지의 눈
이 실눈이 되며 잔경에 바람든 늑갓치 건으로 싱긋긋 웃는다

(부인) 여보게 자네가 참 무정한 사를 일세 령감게서는 자네를 보고 저렇게 조아하
시는데 자네는 령감을 뵈우려 한번도 아니 온단 말인가

(침모) 넋이 령감을 뵈우려 아니 오더리도 령감게서는 나 보러 도동으로 장오신
답니다

(김승지) 어! 녀편네들이란 무슨 큰 일 날 거시로구
엇디 깨들 말을 하던지 성사름을 병신을 믿드네

누가 드르면 넋이 가 똑 침모와 참 상관이나 잇는 줄로 알기네 헤々々

(침모) 그렇게 감추실 것도 업습니다
나도 오날 서지 감추고 지늬 습니다 마는 연분도 한정이 잇는지 나는 령감과 연분이
오날 썩이 올시다

그 말한 마디에 김승지의 눈이 다시 등구리지고 부인의 얼굴 빗히 다시 변하면서 가
슴이 두근두근 하야 지향을 못하노 모양이라

부인이 그날 밤에는 춘천집이 정녕 죽을 줄만 알고 티방을 잔뜩하고 잇던 처에 침모가

오른거슬 보고 의심을 잔뜩하고 잇는 중인데 침모의 말에 령감과 연분이 오늘 썩이
라 하는 소리를 듣고 이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지 몰나서 침모의 얼굴 한번 치어다
보고 김승지의 얼굴 한번 치어다 보는 부인의 눈이 갖다 왔다 한다

침모는 그 눈치를 알고 부인을 미워하던 마음에 부인이 이를 쓰는 모양이 자미가 잇
서々の 심이 더욱나도록 말을 할 듯하며 말을 아니하고 김승지의 압으로 살짜다거
안는다

부인의 가슴에는 더욱 두방맹이 질을 한다
김승지는 침모가 자괴 티밧으로 암체 업시 다거안는 거슬 보니 침모 잔뒤에는 그부
인의게 무슨 곤경을 당할는지 민망한 마음에 빅이지를 못하야 원편으로 기되고 잇
던 안색을 바른편으로 옮겨놋코 기되고

(부인) 이의 세월아
침모가 오작 침깃나나 네! 국슈졸사다가 장국한 그릇만 싹싹하게 마라오니라

(침모) 오늘은 덕에서 국슈를 아나 먹더리도 국슈먹을 복이 터졌습니다
(부인) 다른 덕에서 먹는 거시 썩티 잇나 넋이 먹어 먹어야지

(침모) 잠간 말습시고 가려 하엿더니 너무 오리안젧습니다
오늘은 내가 시집을
가는 날이 올시다
하더니 김승지를 도라다 보며

(침모) 령감 그릿케 감추실것 무엇잇슴닛가
 나는 지금 보면 다시는 못볼 사람이올시다
 내가 오늘 우리 집에 갔더니 원손님이 와 안젓는디 언제부터 말이 되얏던지 우리
 어머니가 사위감으로 정하얏다고 나를 권하는디 낸들 령감을 이질같이 잇깃슴
 닷가 마는 령감께서는 마님도 계시고 춘천마도 잇는디 내가 또 잇고 보면 령감
 께서 걱정이 아니 됨닛가 나도 사과라케 절문년이 혼자 살슈도 업는디 오 우리
 어머니는 압못보는 늙십로인이 하나나 만밧고 잇는디에 내가 하로 밧비 서방이
 나 어더셔 우리 어머니를 다려다가 삼순구식을 하더리도 한집에서 지는거서
 닷도리가 아니 오닛가 오늘이 혼인이
 집에서들 기다리고 잇슬터이니 오리안젓슬슈 업습니다
 마님안녕이 계시오
 령감.....

향면서 눈물이 흐르는거슨 인정잇는계집의 마음이라 선뜻이러서 서뒤도 도라보
 지안코 나가더라
 뒤문밧게 나서면서
 (침모) 인력거군이 어더 갔나
 향는소리에 건넌편마길리집에서 툅튀어나오는 인력거군이 청전뇨를 퍼들고 침모

의 무릅우에 턱들니 힘싸면서
 (인력거군) 턱에로 피시오릿가
 (침모) 남뒤문밧게 좀당겨가 깃네.....
 인력거군이 어느동내나 못지도 아니하고 서산에 썩러지는 히를 좃차가서 붓들뜨
 시 살코치다라나더라

第十九章

침모가 계동서 김승지집에로 향하야갈려는 조심도되고 겁도나고 아모괴운업시
 심너중에 싸여코더니 김승지집을당겨 나올려는 마음이 꽤하고 괴운이난다
 놓적하게 올라안져서 서슬잇게가는바름에 녀편네 마음일지라도 소견이가 늑국
 을합쫓이나 하러가느드시 호괴로운마음이 성기더라
 입으로 옮기지는 아니하나
 마음으로 혼자말이라

김승지의 마누라인가 무엇인가 그홍혼년이 어더서 성것누 세상에 그런홍악혼
 년이 잇슬줄 누가아라
 투괴한다 々々々々 하기로 그런년의 투괴가 어더잇서
 춘천집모자를 죽이고 나서 죽이려고 그년이 그런 흥계를 꾸며
 양반은 말고 티상노군의 부인일지라도 그싸위짓을하고 제가 제명에 죽기를 바라

.....
점술이란 년은 어디서 고짜위년이 싱겨서 그 흉악한 년의 종이 되얏누
에그 아슬々々 하여라 내가 고년의게 속든 생각을 하면 소름이 끼치지
엇지 하면 고릿케 앙큼하고 담디히고

우리 어머니가 아닐려면 고몹슬년의 썩임에 빠져서 무슨 지경에 갓슬구
한참그런 생각을 흘씩에 인력거가 남문밖 정거장을 썩지나면서 창고회스 벽돌집
이 눈에 선뜻보히는디 그압으로 올너오는 전차하나히 천동갓흔 소리가 나며 남문
을 향하고 번기갓치 지나가는 거슬보고 다시 혼자 말로

에그 그회스 집압으로 전차 지나가는 거슬보니 생각나노일이 잇구나
춘천집이 죽으려고 업드렸든 곳이 저회스 집압 철도로구나 저러흔 전차에 처엇
더면 두도막세도막에 낮슬 번갓지 그늘너가 룡손가기도 이상흔일이오
밤중에 오기도 이상흔일이오 인력거군이 길러너머지기도 이상흔일이오
너가 인력거에서 썩러져서 스지를 씹씩 못하게 되야 썩실너서 춘천집에로 드러
가기도 이상흔일이지

춘천집이 오죽서러서 어린자식두고 자슈를 허러 드렸슬가
그렇게 불상한 사람을 김승지의 마누라와 점술이가 괴해히 죽이러드니 그런
몹슬년들이 또 어디잇서

나도 몹슬년이 지아모리 점술이가 썩히기로 그소리를 솔곳하게 드러
나노 우리 어머니 심덕으로 너가 몹슬곳에 빠지게 된거슬 면홀터이나 춘천집은
엇지 될것인고

공면서 정신업서 안젓난디 인력거군은 어디로가는지 못지도 아니하고 도동으로
드러가는 길을 지니놋코 창고회스 집압으로 정신업서 다라나다가 압해서 마쥬오
는 인력거와 엇지 몹시 부디 쳇던지
인력거 탄사들은 박낭사철퇴 소리에 놀난 진시황갓치 혼이나서 서로너다보더
라

좌우길가에는 거러가는 형인들이오 길가온디는 말바리쇠바리 인력거들이라
사람을 피하야 가는 인력거의 박회씨흔 도래쇠가 마주부디치니 사람은 다치지아니
하얏스나 인력거군은 인력거나 상갓엿슬가 넘너하야 인력거를 멈치고 압뒤로
도라다니면서 인력거를 삼혀본다

침모가 놀남마음을 진정하야 삼혀보니 전년겨울에 인력거우에서 썩러지던곳이오
춘천집이 죽으려고 업드렸던 철도가이라 침모가 지닌일을 생각이나서 고기를 낚
드고 정신업서 길바닥을 보고잇는디 마쥬하던 인력거우에서 너다보는 사람은 나
히슴십이 되락말락흔 남자이라 의관이 애긋하고 외모도 영특하게 생겼스나 언뜻
보아도 상티가 썩々 썩러지는 천적의 사람이라

점잔은 사름갓흥면 사름이 단쳤나냐 못던지 인력거가 상하얏나냐 못던지 그러흐
말썽일터인디 침모의얼굴을보고 춘향의우중에 점치러 드러가는 장님의 마음갓
치 춘심이탕양홍야 구레나룻을 썩々쓰다드무며 너목소리를 드러보아라 너얼골
을 치어다보아라 흥는드시 헛기침을 연히흥며 막걸리집에서먹어는 오입징이말
투로 되지안케 짓거린다

(침모)인력거군

히다가는구

어서가지

그러나 길잘못드러서

(인력거군).....

(침모)나갈데는 남관왕묘엿하야

관왕묘엿해 강소사집이라고 문피붓흔집이있지

그리로가세

엿해인력거랐던 남자가 그소리를듯더니 마쥬인력거군을 제촉한다

여보게 인력거군
나도 그리로가네
어서가세

침모가 그소리를듯고 민망하기가 측량업스나 나따라오지 말나홀슈업는터이라
두인력거가 도동으로 돌쳐드러가는디 큰길에서는 급히갓거니와 도동드러가는
길은 언덕이라 올라가는 동안이 한참이되는데 남은무심이 보건마는 침모는 제
풀에 슈동흔마음썩이라

침모의 인력거군은 춘천집디문압해서너리고 뒤에오던인력거는 관왕묘압해서
너리는데 침모는뒤도 도라보지아니하고 춘천집에로 드러가더라

춘천집이 침모의목소리를듯고 상그레우스면서 안방문을열고 나오는데 도다오
는달갓치 탐스럽게 싱긴얼굴에 인정이썩々 덧는듯하다

(춘천집)여보 어디갓습더닛가 너가박티를흥얏더니 노히셔 잔담말도아니하
고딧에로 가신줄로 아랏소구려

응이제알기구

어디반가온 사름이잇셔々 차져당기시나보구려

내가 용케알지

하하 하하며 반겨나오는 모양보고 침모가삼시간에 별싱각이 다드러잔다

(침모)나도 몹쓸년이지

아무리 점순이가 썩히기로 저러케 인정잇는사름을 허칠마음을 두엇던가
심흔마음이 청기면서 불상흔싱각이 엇지몹시드던지 점순의흉계를 일너주고심
흔마음이 벗척드러가나 그 어머니의게 드른말이 잇는고로 참아말을못하고 김
승지집에서 호던말과갓치 씩이는말로 티답흔다

(침모)참 반가운사름을 보러갓다 오느길인티.....

누구의게 드르셨나보구려

그러나 나는을나갈 결을이업소

오늘은너가 츠시집가는날이오

(춘천집)에그머니 나는 룡담으로 혼말이 맞쳤나베

에그 썩々호여라

그리오날부터 우리집에는 아나게실러이오구려

령감어더 가시는것도 좃치마는 좀을나오시지도 못흔담말이오

(침모)내가 인제가면 언제또을지말지흔 사름이나 일년이나 이웃에서보던사
름들을 작별이나 좀호고오깃소

호면서 밧그로나가더니 저진담베 한티 피홀동안이 다못되야 침모가 도로드러오
느디 압뒤집흔은로과가 두셔넋이나 짜라드러오며

저 마누라님이 오늘부터 이딴에아나게실러이라지오
호며 춘천집을보고 말호는사름도잇고

인제가시면 이딴에는 다시아나오시오

호며 침모를보고 말호는사름도잇고

저 마누라님 오늘부터령감어더 가신다느디 순돌어머니는 령감도아니엇고 일
싱흔조만잇소

호며 점순이를보고 말호는사름도 잇더라

아히들은 무어슬 보러드러오는지 하나들이 드러오기 시작호더니 손빠닥만흔안
마당이 툄러지도록 드러오느디 점순이느방어리닝가슴알듯호고 잇다가 만々흔
아히들의게 독살푸리를흔다

(점순)무슨구경났나나

무엇호러 남의집에 이럿케드러오나나

누가시집을 가느니 괴급을호느니 호는소리를듯고 국슈갈구렁이나 잇슬줄알
고 이러케들 드러오나나

보기실타 다나가거라

호며포달은 부리느디 다른사름들은 무심이보나 침모는 점순의 오장을 드려다
보느드시알면서또흔 남더러말못홀일이라 물그름보고서々 심중으로 혼자말이라

조년이 나를 미워셔 부리는 포달이로구나
 인물이 조만치 암전히 성긴년이 마음은엇지 그리영독하고 아마 조년의악심
 은 조년살과목소리에 다드러난거시야 누가시집을 가느니 괴급을느니 하며
 빗디뚝코 나더러욕을 호나보다마는 오냐욕은 세소품으로안다
 너갓흔 몸슬년의썩임에 싸지자 아니흔것만 다형하다
 니가 오늘부터 이집에아니잇는줄은 원동니가 다알러이다 네가 아무리 흥계
 를삼이더리도 춘천집을 죽이고 그죄를네게뒤집어 씨출슈는 업슬겔.....
 요몹슬년네가 나넌엇더케 죽이러드러드나

춘천집을 죽이고 네게밀녀드러드나 춘천집을 죽이는섬에 나치지죽이러드러
 더나하나식처례로 치여버리러드러드나

그리흔싱각을하며 점순이를 정신업시 건너다보다가 점순이가 할곳도라다보는
 서슬에 침모가 짹짹놀나며 고기를폭슈구리더니 다시고기를드러 춘천집을 도라
 다보며

(침모)나논어셔 가야하릿소

하더니 건넌방에로 드러가셔 제옷보통이를 들고나오며 춘천집과 점순이게 조
 혼말로 자별하고 디문밖게로 나가셔 인력거를 타느니 춘천집이 짜라나오며 눈
 물을써스니 침모가 마쭈눈물을씻고 자별을하며 연홀도라보니 아히들은 츄구

경이나난드시 인력거압뒤로 느러셔보느니 남관왕묘디문압해서 팔장을씨고
 슬々도라당기는 사름하나이잇느니 그사름은 창고회사압해서 인력거를타고 침
 모의 인력거를 짜라오든사름이라

침모의마음에는 그남자가 침모의게뜻이잇셔々 그근처에와셔 침모가엇더하사름
 인가알녀고빙々도는듯하야 밍고시른싱각이 드러셔 자별하는사름의게 말을간
 다히디답고인력거군을 지촉하야 짜나가니 침모의마음은 시연하기가 한량
 업스나 춘천집의 마음에는 전년거울에 철도에업디러다가 침모의인력거군이길
 녀너머져셔 침모를맛나던 생각부터 일년을갓치 정답게지니던 생각이났々치나
 면서 식로히 숨흔마음을 진정치못하야 안방에로드러가셔 침々하게어두어가는
 방에불도아니켜고 혼자안져 눈물만흘니더라

第二十章

관왕묘압마당에 몰엿던사름들이 일시에허여지고 그마당이다시적々흔디 그적々
 흔름을라셔 관왕묘흥문압해서 빙々도던남자는 점순의형낭방에로 서슴지아니하
 고속 드러간다

점순이가 그남자의신을 얼는집어 방안에로드러뚝코 방문을툑 닫치며
 (점순)여보거괴좀 안져기다리시오 니가안악에드러가셔 전역진지 치르코나
 오리다

항더니 안에도 드러가서 전역밥상을 차리는데 춘천집이 심지가 좃치 못하야 전역 밥을 아니먹기다 하는 소리를 듣고 다항히여겨서 차리던 밥상을 치여놓고 항냥에 로나가서 방문을 필적열고 드러가며

(점순)여보최셔방

니저조쫓치 말셔전역치르고 설거지다항얏소

에그참 설거지항기시린디 우리는 잇다가 장국밥이나 먹으러나갑시다
그러나 이일을엇더케항면 좃탄말이오

(최)말셔 쟁흔일을 인제와셔 엇더케라니.....

(점순)아니오

오늘아 참에 우리가 의논흔일이 다 틀넷기에말이오

(최)응 틀니다니

(점순)침모가 오늘별안간에 저의집에로 갓소구려

(최)침모가 업스면 무슨일못하나

(점순)못할것이야 무엇잇소

(최)그러면.....

(점순)요식갓치 밝은제상에 사름을죽이고 혼적업시감츄려항면 쉬을슈가잇소
침모는 우리뒤렁감게 귀염을받는사름인고로 침모를썰야셔 춘천마누님을죽

이면 령감하나는 감썩갓치쇠기가 쉬을터인디.....

(최)압다 슈돌어머니말은 알슈가업는 말이오구려

김승지뒤마님은침모씨지 죽여달나하는대 침모를썰야셔 춘천집을죽이고 침모
는살녀두면 그거슨 언제또죽인단말이오

나항라는뒤로만 항엿스면 그사지것들은 하로밤니로 다업셔버렸슬거슬 슈돌
어머니가 무어슬 환단말이오

그리할것업시 지금일지라도 춘천집 모자를 죽여버립시다

(점순)글세 침모가 그일을알고잇는터에 말이나 아니늘는지 그거시조심도되
고 또오늘침모가 저의집으로 가는뒤별안간에 그런일이잇스면 이동너사름이
의심이나 아니할는지.....

(최)무슨일을 항면항고 말면말지 말셔일년이나두고 경영만항다가 이제와셔
그거시 다무슨소리오

그리케 일을항여셔 무엇이되깃소

나는슈돌어머니만 바라고잇다가 큰낭피항깃소

여보 그만두오

나는다시 슈돌어머니밋고 오지아니홀터이오

항면서 벌떡이러셔 나가려항니

(점순) 응잘가는구
다시아니 올것갓치.....

어디 반흔곳이잇셔々 핑계조게 나를세여버리려고 그리하는거시로구
흥면서 상긋々 웃고 안젧더라 최가々 이러설셔에 참 가려는마음으로 이러한
거시아니라 점순이가붓들고 만류홀출아랏더니 만류를아니하는거슬보고 도로안
기도 열적고 갈마음도 업논터이라 주져々々 하다가 싹셔々 하는말이
글세 우리가 김승지댁 마님돈을 여잔업섯소

그러나 지나잔일은 엇더하던지 이압일은 혈후히하여서는 못습닌다

우리가 마님소원되로하면 마님이 우리소원되로 엇더케하여 준다흠더닛가

(점순) 장 드르면서 무어슬 시슴스럭게 또무러

(최) 아니 너가자세이 무러볼일이잇소

(점순) 말을하러거든 안져셔하구려

원동네가 다 들니라고 웨셔々 그리하오

최가々 핑계조게 다시주져안지며 가슴압을홀쳐하더니 지권연한기를 집어내셔
붓쳐물고 점순의압호로 벗셔 다거안지며

(최) 자! 이만하면 업헤 쥐도못아라듯게 말 홀터이니 좀자세하오

점순이가 본리눈우숨을 우스면 사름의 오장이 녹을만치 웃는눈우숨이라 그솨

씨잇는 눈우숨을 상그레우스면서 얼굴이복송아싹갓치 붉어진다

(최) 이이 요시얼골조왔고나 연지분을 발났디

(점순) 남더러 히라는 우이하여

염체업시.....

(최) 요 암체업는것

네가 남이나

(점순) 그림 남이지무엇인가 이편 계집될사름으로 알것갓흐면 길뚫흐면 가는

니오느니 홀나구

본마누라 쉼버리고 나고산다는말도 다 거짓말인줄알아

(최) 이이 그거슨념녀마라 내가잔다하니 우리마누라의게 잔다는줄아랏더니

업다 내가여기아니오면 술잔먹고 친구의사랑에서 잘지언정 요시는 우리집에
셔 자본적이업다

어제도우리장모를보고 내가 그말 다하엿다

쌀을다려다가 보닐곳잇거든 보내라구.....

압다우리장모가 그말을듯더니 죽겟다고 너두리를하느니 썩티단하데.....

그러흐디 슈돌어머니는 남의속은모르고 성으로 남의이미홀 말만하니 싹홀일
이야 우리가너외될언약이 잇는후에야 범연홀리가잇나 슈돌어머니가 일결말

을 말서 냷스면 우리 마음 디로 될터이니 일년이나 되도록 일을 세러가니 원일이
지

(점순) 내 마음은 더 밋분데

(최) 그리 디관절 김승지 님이 우리 일은 잇더케 하여 준다던가
점순이가 상국이 우스며 최가의 열관을 말그롭보다가

(점순) 우리 일은 격정업서

우리 디마님이 령감을 쉼여서 할일은 다 하였다오

(최) 썩이기를 엇더케 하였스며 할일은 엇더케 하였단말이야

(점순) 내가 거북이기를 족먹였다고 그공노로 속량하여 주고 최서방의 이름으
로 황히도 연안잇는 천장마름차점서지 네어노앗다오 그전장은 내손에 한번드
러오면 내것되고 말걸.....

(최) 우리들의 일을 마님만 아르시느줄 아랏더니 그렇감도 아르시나

이이 무슨일을 서슴다가는 아모것도 아니될터이니 지금 디로 춘천마사를 죽여
업시세

(점순) 그러나 엇더케 죽이면 조켓소

(최) 오늘 아침에 숙들어머니 말이 춘천집을 아편이나 먹여뚫코 방안에 석유나
만히 드러뚫고 불이나 질고 어린아히는 그속에 집어던지고 슌들어머니는 마

당에서서

불이야 사사사 소리만 지르다더니 웨 또잔 소리를 하여

최가사 점순이더러 허오도하다가 허라도다가 반말도하느디 엇지보면 점순이
를 잠것놀나 듯하느것 갓흐나 그런거사아니라 점순이를 잡아 숨킬것갓치 귀의
하느 마음에서 나오느거사라 점순이는 무슨 생각을 하느라고 아무소리업시 안졌
느디 최가는 각갑중이 나서 점순의 압호로 한번더 다거안지며 저축한다

(최) 이이 아편은 다 무엇이나 너가 안방에 드러가서 춘천집을 썩소리도 못하네
죽일터이니 너는 석유흔들만 가져다가 안방에 드러부어라

그리하고 불을 지르면 누구던지 이집에 불이나서 춘천집이 타죽은줄노알지
누가 죽인줄로알기나

점순이는 의구히 무슨 생각을 하느지가 만이 안졌고
최가는 사각을 참지 못할것갓치 저축을 한다

최가사 춘천집을 그러케 급히 죽이려느거슨 춘천집을 미워셔 그리하느거사아니
라 춘천집모자를 죽이면 슈가날일이 잇느곡절야오

점순이가 디답도얼는 아나하고안졌느거슨 춘천집을 죽이기가 시려셔 그리하느
거사아니라 오늘밤 디로 춘천집모자를 죽이고 집에 불지른다는 썩을 침모가 다아
느고로 침모의 입에서 말이 날서 넘녀하야 그리하느거사라

밤은점々김허가고 최가는지축을 벗혀하고있는데 썩만흔점순이도 엇지하면조홀
지성각을 정치못하다가 무슨조홀도리가잇던지 최가를 쳐어다보며

(점순)여보 최서방도 펴급흔성품이오 무슨지축을 그것케하오

(최)급하지아니하면.....

무슨일이 일년을썰다가 오늘은무슨결말이 날줄아랏더니 오늘도 또결말이야
니난단말인가

(점순)가만잇소 이와참는김에 년년봄에 늘쌔듯홀씩 서지만 기다리시오

그러면 조홀도리가잇소

그러나 그씩는최서방이 그일을전당하야 맞지아니하면일이아니 될터이오

不許
複製

明治四十五年二月三日印刷
明治四十五年二月五日發行

著 述 發 行 印 刷 印 刷 發 行

鬼의聲上編

定價 三十錢

京城旭町一丁目二百二十八番號

著 者 李 人 植

京城北部壺洞三十統四戶

著 者 閔 濬 鎬

京城南部上犁洞三十二統四戶

著 者 崔 誠 愚

京城南部上犁洞三十二統四戶

所 新 文 館 印 出 局

京城北部承洞禮拜堂前

所 東 洋 書 院

京城北部小安洞十六統八戶

所 普 及 書 館

東洋書院說俱樂部

목단화	만월디	빈상설	홍도화上下	치약산上下	화세비	지환당	원앙도	성산명경	고목화	쌍옥적	월하가인	두견성	옥호괴연	심오소호걸	추풍감수록
全一冊	全一冊	全一冊	全二冊	全二冊	全一冊	全一冊	全一冊	全一冊	全一冊	全一冊	全一冊	全一冊	全一冊	全一冊	全一冊
定價三十錢	二十五錢	三十錢	四十五錢	七十錢	三十錢	二十五錢	二十五錢	二十五錢	三十錢	二十五錢	二十五錢	三十錢	二十錢	三十錢	二十五錢

京城 中部 承洞 禮拜堂 前 東洋書院

東洋書院發賣目錄

袖日漢朝鮮	珍文詳解	新玉篇	新式裁判法令集	初生理衛生學大要	等日韓言文自通	國民必携	樵牧必知	新應用肥料學	選日語初程	習日語初程	中書集註	新四書集註	普通漢文新讀本	高等日文讀本	算術要解	袖新約聖書典林
全一冊	全一冊	全一冊	全一冊	全一冊	全一冊	全一冊	全一冊	全一冊	全一冊	全一冊	全一冊	全一冊	全四冊	全三冊	全一冊	全一冊
一圓二十錢	三十五錢	三十五錢	二十五錢	二十五錢	三十五錢	三十五錢	三十五錢	三十五錢	四十錢	四十錢	五十錢	五十錢	二圓四十錢	六十錢	八十錢	五十錢

電話一〇三二〇

本館大賣書籍目錄

朝鮮語學教範	朝鮮語典	算術問題解法全書(完全數部)	中等英文典	日語用言譯解	日語通編	附音尺牘	簡易八種商業簿記	簡易商業簿記	朝鮮現行法規大全	朝鮮尺牘	新約聖書典林	算學通編	日語大海	教科適用唱歌集	集註孟子	集註論語	中庸	大學	集註小學	
全	全	全	全	全	全	全	全	全	全	全	全	全	全	全	全	全	全	全	全	全
定價 一圓二十錢	五十錢	五十錢	五十錢	八錢	三十錢	三十錢	五十錢	五十錢	四錢	一錢	一錢	一錢	一錢	一錢	一錢	一錢	一錢	一錢	一錢	一錢

보급서관디발미신소설

화세계	쌍옥적	공견흔니야기	월하가인	치악산 (상하)	두견성	원앙도	자유종	목단화	오지정	만월디	홍도화 (上下)	고목화	옥호괴연	심오소호걸	구마금	지환당	모란병	세계의창시	황금탑	추풍감수록
全	全	全	全	全	全	全	全	全	全	全	全	全	全	全	全	全	全	全	全	全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發賣所

北部小安洞十六統八戶

普及書館

金容俊

(電話一九〇六番)

